

'다양하게 즐기는 익산 시티투어'

익산방문의 해... 방학 · 설 명절 연휴 앞두고 한 달 앞당겨 시작

익산시가 '2024년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시티투어를 통한 케이(K)-관광 선도에 나선다.

익산시는 이달부터 올해 시티투어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겨울방학을 보내는 학생들과 명절 연휴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해 시티투어 개시를 지난 해보다 한 달 앞당겼다.

지난해 익산시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같은 열풍을 이어가 올해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티투어 활성화 전략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관광객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순환형(주말·공휴일) △테마형(예약) △고백(종교·문화 탐방) 등 3개 유형의 시티투어 상품을



마련했다.

우선 순환형 시티투어는 매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관광버스를 7차례 운행한다. 버스는 익산역을 출발해 원불교종부와 고스락, 이상현교도소, 미륵사지·국립익산박물관 왕궁리유적, 보석박물관을 차례로 방문한다.

올해는 첨체된 구도심 골목 상권 활

성화를 위해 일부 노선의 마지막 승강장을 익산역 앞 문화거리인 '중앙동 빛들로'로 지정했다. 시티투어를 마친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구도심을 거닐며 계화림과 문화거리 인근 상권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테마형 시티투어는 익산 숨은보석 찾기와 세계유산, 맞춤형으로 나눠 운영된다.

익산 숨은보석 찾기 코스는 오전 10시 익산역을 출발해 내비위성지와 고스락 이상현교도소, 보석박물관, 익산 문화예술거리로 방문한다. 세계유산 코스는 매일 낮째주 토요일에 운영하며 오후 1시 익산역을 출발해 왕릉원과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등 역사 유적지를 탐방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시는 1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 푸드테크 관련 대학과 회의를 진행했다.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

익산시, 지역 푸드테크 관련학과 등과 인력 연계 방안 강구

익산시가 미래 신(新)산업인 푸드테크산업 선도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1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 푸드테크 관련 대학과 회의를 진행했다.

푸드테크(FoodTech)산업은 식품의 생산·유통·마케팅 전반에 정보통신(IT), 바이오기술(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이다.

시는 푸드테크 관련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북대·전주대 교수와 지역혁신타입(RIS)을 담당하는 원광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역 인재 양성과 상호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의 푸드테크 교육 내용을 공유하고 인력양성에 따른 애

로사항과 대책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윤리 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인 실무 능력 배양도 도모하기로 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진흥원의 벤처 창업 시설 등을 활용해 대학의 교육내용에 대한 실증도 진행할 방침이다.

하진 익산시 부시장은 "급변하는 식품산업에 대응하고 정보기술(CT)을 접목한 푸드테크산업을 선도해 식품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식물기반 대체식품 분야 신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2월 중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 소식통

군산시, 설 명절 전후 청렴 주의보 발령 공직기강 확립

군산시는 1일부터 13일까지 설 명절 전후 13일간 '청렴 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청렴 주의보는 명절 전후 및 선거철과 같은 부패 취약시기 전후에 발령하여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공직사회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설 명절 기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음·선물 등 수수행위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의 식사 포함한 면 업무협의 제한, 설 명절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 및 방치 금지, 복무기강 확립 및 선거종립 의무 준수 등이다.

군산시는 이 밖에도 공직자 '명절 선물 안주구 안 받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청탁금지법 선물 수수자가 진단표'를 내부 업무망에 게시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보건소, 노인인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군산시보건소는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기능회복을 돕기 위한 노인인지(틀니)지원사업 대상자를 1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평생의 영구치 손실로 저적이 어려워 인지 보철물이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지(틀니)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개인의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며, 모집기간(2.1.~2.16.) 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보건소 전화(454-5846~8)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하신 어르신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내소하여 구강검진 및 상담 심사 후 노인인지(틀니)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2024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장보기 · 식당 이용 캠페인 전개... 전통시장 활기 더해

군산시는 1일 설 명절을 맞아 역전 종합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시장과 박덕

하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군산시장 상품권으로 농축산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매하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 시장 상

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했다.

조경민 역전종합시장 상인회장은 "많은 시민분들이 대형마트보다는 인정 넘치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며 훈훈하고 활력 넘치는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든 시기이지만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물가 부담 줄이는 효과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군산시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전통시장과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민분들도 전통시장을 애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20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접수

익산시가 쌀 과잉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급률이 낮은 식량작물 재배 장려에 나선다.

시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품목은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하계조식료 등으로 지원단가는 ha

당 200만 원(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옥수수과 하계조식료(총체비 포함)의 경우 ha당 100만 원 선이다.

다만 올해부터 대상 품목에 소폭 변화가 있어 신청 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완두, 팥 등 "두류"는 전라지역 직물제 지원품목으로 포함되어 올해 논타작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작물 중 벼,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도 지원제외품목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 사본, 신청농지는 필지단위, 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18년 첫 시행한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농가의 꾸준한 관심과 호응을 얻어왔으며 특히 지난해 수해를 입었던 농가의 피해 복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서동시장, 명절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익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익산 서동시장(상인회장 서길봉)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익산 서동시장을 포함해 5개 시장에서만 진행된다. 익산시는 서동시장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서동시장 20개 대상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 영수증을 서동시장 내 1층 광장 환급처(상인회 사무실 옆에

제시하면 된다.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이 환급된다.

행사기간 내 1인 최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길봉 상인회장은 "명절에 서동시장을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환급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 정책을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